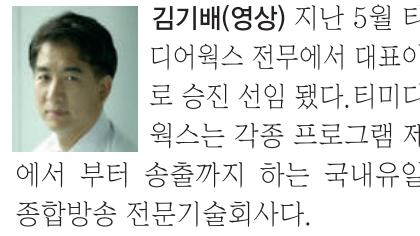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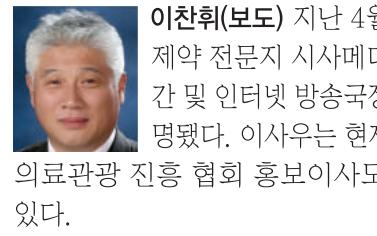
방송에서의 '인생역전'은 예상치 않게 일어나곤 했다. A방송사 연기자 모집에서 탈락한 텔런트가 B방송사에서 불세출의 배우로 성공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 인 일이다. 굳이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텔런트선발대회가 자주 열리던 시대에는 종종 회자된 사례들이었다. 벽조 흥명희의 소설 <임꺽정>이 SBS 드라마로 제작돼 방송된 건 1996년 11월이었다. 연출자 김한영(그는 한촌이라는 애호로 불려주는 걸 좋아했다)이 처음 캐스팅한 주인공 임꺽정 역은 Y로 낙점됐다. Y는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꺽정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Y가 적 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칠 수 있었던 때였다. 그만큼 임꺽정 역은 Y를 맡아 놓은 당상이었다. 한촌은 일자 캐스팅한 Y를 나에게 보냈다. 보냈다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시의 SBS 제작시스템에는 드라마 PD가 캐스팅을 마친 다음 제작관리부로 보내게 되어 있었다. 출연계약서에 서명하는 일 이전에, 배우와 미주 앉아 출연료를 합의하는 과정이 제작관리부장의 역할 중 하나였다. 짐작하였지만, 회사는 연기자의 기준 출연료보다 깍으면 깍았지 더 주지 않으려 했고, 이에 맞서 연기자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출연 고시를 불사하였다. 면서까지 출연료 인상을 주장하는 자리였으니 어찌 보면 연기자나 팔자나 못해먹을 짓을 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최고의 프리랜서 연기자가 회당 150만 원을 받을 때였는데 Y는 처음부터 400만 원을 제시했다. 모르긴 몰라도 Y의 생각은 이랬을 것이다. SBS는 전국 방송이 아니어서 인기 유지에 지장이 있으니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겠으며, 연기자들이 SBS로부터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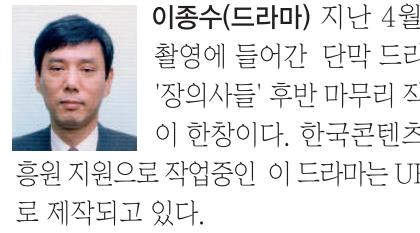
## 사 | 우 | 동 | 정



김기배(영상) 지난 5월 티미디어워克斯 전무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선임 됐다. 티미디어워克斯는 각종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송출까지 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방송 전문 기술회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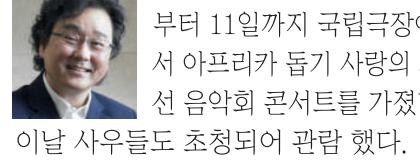
이찬휘(보도) 지난 4월 의료제약 전문지 시사메디in 주간 및 인터넷 방송국장에 임명됐다. 이사우는 현재 대한의료관광 진흥 협회 홍보이사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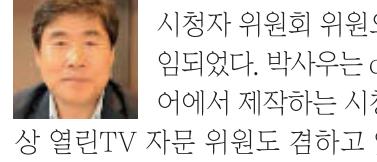
이종수(드라마) 지난 4월에 촬영에 들어간 단막 드라마 '장의사들' 후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으로 작업중인 이 드라마는 UHD 특설무대서 갖는 연주회는 9월말까지 계속된다.



박영호(제작) 지난 5월부터 여름밤 더위를 씻어주는 강변색소폰 연주회를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밤 한강 성산대교 특설무대서 갖는 연주회는 9월말까지 계속된다.



김정택(악단)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국립극장에서 아프리카 돋기 사랑의 자선 음악회 콘서트를 가졌다.



박동주(라디오) 지난 4월 SBS 시청자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박사는 ch 미디어에서 제작하는 시청자 세상 열린TV 자문 위원도 겸하고 있다.

### <협찬금 내신 분>



구자길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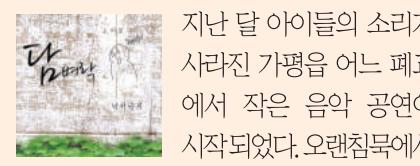
변순복  
(30만원)



이근용  
(30만원)



조희수  
(20만원)



지난 달 아이들의 소리가 예술을 접목시킨 전시장, 사우들의 재능사라진 가평을 어느 폐교에서 작은 음악 공연이 시작되었다. 오랜침묵에서 깨어난 운동장에 클래식 선율이 김미롭게 변모나갔다. 와롭게 폐교를 지켜온 짙푸른 나뭇잎들이 선율에 살려 춤을 추었다. SBS 사우회가 지역 문화 예술의 공간이 될 상설 전시장의 문을 여는 축하 자리였다. 사우회가 공들여 추진 해왔던 재능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 꽃이 핀것이다. 사우회, 가평군, 공연기획사, 삼각편대가 이뤄낸 결실이다. 디지털 시대, 방송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SBS Mediatnet  
서울 마포구 상암동로 82 (서울특별시 마포구)



SBS

# SBS 사우회보

www.sbsau.co.kr

발행처 사단법인 SBS사우회 발행인 김수웅 편집인 박동주 주소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2, 605호(태양빌딩) TEL 02)783-0590~1 FAX 02)785-9805

SBS 사우 3대 덕목

서로 이해하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2016년 7월 1일 제39호

## 사회 공헌 프로그램 꽃이 피다

가평군 아트뮤지엄 재능기부

SBS사우회가 사우 재능기부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가평군과 함께 추진해온 가평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이 지난 6월 23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가평은 복장포조 등학교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SBS 사우회 임원진과 김성기 가평군수, 인터랙티브 뮤지엄 박대양 대표 등 문화예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됐다. 김수웅 사우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 전시장이 문화콘텐츠의 중심이 될 수 있게 SBS 사우회가 열심히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에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 전시장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간광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의 벽장을 풀지 않아 지상파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10년째가 된다. 광고주들이 중간광고가 불가능해 지자지상파에 광고를 줄이고 있어 지상파 방송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 너 > 섬 > 나 > 섬

- 사우회 사회공헌 프로그램 결실. 이제 사우들의 아낌없는 재능기부를 할 차례기부왕 빌게이츠 손들고 기부업 하게
- 사우회 볼ഴ이 애유회 성황. 싱그러운 숲속길 힐링으로 샘솟은 힘 어디다 써먹을까? 꽃도 보고 님도 보았으니 알아서 하시길...
- 동호회 이벤트 행사 풍성. 사우회 창립 10주년 맞이 특별 지원으로 동호회 참석률 사상 유례없는 만원사례. 역시 생선회나 자주금은 두툼해야 제맛이야
- 사우들 백두산 등정길. 백두정상에서 야호! 와치지 마시길. 백두산 호랑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나타나면 백살 精氣 받아나마 도루아미타불.



## 숲속길 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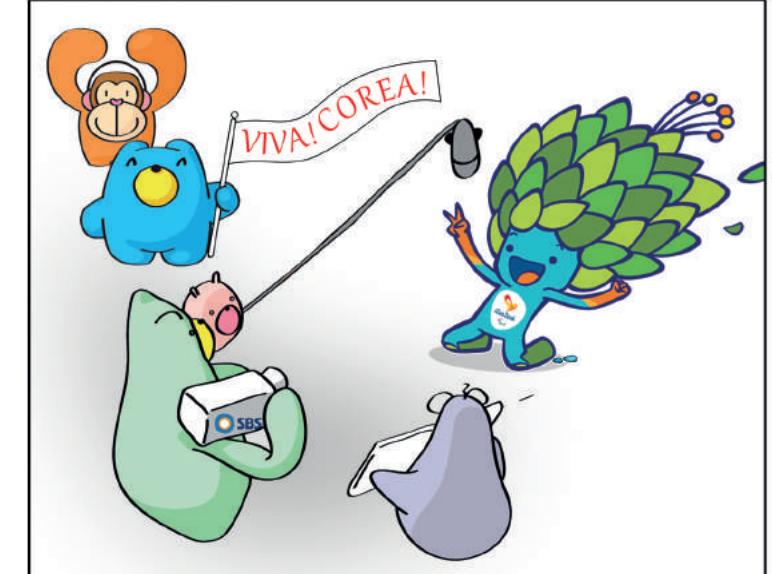
힐링 애유회 만끽

'비람에 실려온 꽃 향기를 마시며 싱그러운 숲길을 거닐었더니 힘이 샘솟는 것 같습니' '옛 동료들 오랜만에 얼굴보며 얘기 를 나누는 것 이게 힐링 아닙니까?' 지난 5월 19일 경기도 곤지암화담숲, 사우회 볼ഴ이 애유회 참석한 사우들의 힐링의 외침 이었다. 이 날 애유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사우들은 숲속의 자연과 교감하면서 지친 마음을 해독했다. 사우회 김수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사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숲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사우 모두 백세인생 누리기를 기원했다. 특히 이날 애유회는 9명의 부부동반 사우들이 참석해 임고부부의 애정(?)을 과시 했다. 숲속길 힐링을 마친 사우들은 인근 바베큐장에서 오찬을 즐긴후 가을애유회 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편 사우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 가을 애유회를 사우회 창립 10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담아 색다르게 준비할 예정이다.

## 그들이 백두산으로 갔다.

SBS사우회 사우들이 지난달 29일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마련 된 이번 백두산 등정은 32명의 사우들이 참가했다. 32명의 사우들은 4월 5일 일정동안 백두산 서파코스 등정을 비롯해 집안의 광개토대왕비 등 고구려 역사 유적지 탐방과 단동과 대련 지역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이달 3일 돌아온다. 한편 이번 백두산 등정길에는 5명의 사우가 부부동반으로 참가했다.

### SBS社友漫評



以熱治熱 • 올림픽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 동호회는 푸른 날

사우회 창립 10주년 맞이 풍성한 이벤트

'사우회 각 동호회별 사우회 창립 10주년 맞이 특집 이벤트' 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음악동호회와 문화동호회는 연합으로 지난 4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아마데우스 공연을 관람했다. 30여명의 사우들은 천재 음악가 볼포강 아마데우스의 흔적을 음미했다. 이밖에 바둑과 당구 동호회도 사우회장배 대회를 가졌다.



### ◆ 특별기고

#### 바늘가는데

-글/함현심(박충사우부인)

마트에 가면 1+1 제품이 구매욕을 자극 속직으로 집에서 자는 날 식사하는 날 할 때가 있다. 하나 더으로 주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볼까 하다가도 그냥 내려놓는다. 테이프에 칭칭 묶인 제품이 자유로운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세월은 훌려 훌려 우리도 피할 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이와는 달리 10년 전에 문을 연 SBS 사우회 마트(?)에서는 1+1 제품을 빠짐 없이 산다. 갈 때마다 카드에 넘치도록 담으니 자연 최고의 단골손님이 되었고 어느 날 사우회 마트(?)로부터 금슬 좋은 표창장(?)과 부상으로 1+1 별명을 받았다. 남편이 참가하는 사우회 동호회 모임에 함께 한지도 꽤 오래됐다. SBS 사우회 요산요수, 음악, 문화 예술 동호회 모임에 항상 우리 부부는 꼭 참석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보니 자연스럽게 1+1 부부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남편의 현역 시절에는 출장과 야근

1+1 부부가 참석하는 요산요수회를 통하여 우리 부부는 육체는 물론 정신도 건강해졌으며 음악 동호회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클래식이든 대중 음악이든 무식을 면하게 되었고 모임 때마다 강동하 총무님께서 선곡해 선물한 주우같은 CD가 50장이 가까워 오니 이를 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살수 없느냐는 주문까지 한다. 또 문화예술 동호회가 마련한 훌륭한 영화와 명화 전시회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맛집 탐방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SBS 사우회 동호회 모임에 남편과 함께 참석을 하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었다. 동호회 모임에 처음에는 여자들이 없어 서면서 막 하였고 껌딱지처럼 나만 붙어서 온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동반 숫자가 늘어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자주 얼굴을 대하니 누가 않 나오면 궁금해서 연락까지 할 정도로 끈끈해졌다. 우리

들통나서 싸웠다는 얘길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뒤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 처럼 밝혀져 자수하고 광명찾은 남편 뉴스를 전해주는 부인들은 많았다. 바늘가는데 실이 안가면 사랑의 웃, 행복의 웃, 건강의 웃을 페낼 수 없습니다. 저처럼 껌딱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보 화장 안해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뭐하려해, 동호회 늦겠어 빨리 서둘러'



### ◆ 경조사

#### 축하합니다.

이근용 삼녀(4/16) 김화진 아들(6/18)  
김상일 장남(6/18)

#### 애도합니다.

이병로 부친상(3/31)  
변순복 부군상(4/24)  
손홍조 모친상(6/23)

### ◆ 회비내신분

#### 연회비(4월~6월)

유재순 이명길 김지혁

#### 종신회비(각30만원)

김상일 김화진 이상규

### ◆ 회비안내

(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종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찬회비 1005-001-954097

www.mediareate.co.kr (02) 6262 – 2800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모두와 함께 가는 미디어 세상 -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만들어 갑니다.  
단순한 매체 대형을 넘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까지  
고객과 방송사는 물론 시청자,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미디어 세상을 열어갑니다.

Grow up together

미디어 크리에이트  
MEDIACRE8

미디어 크리에이트는 국내 최초 민영 미디어렙으로서 TV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적의 미디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BS Media Group

## 대구 골목길 투어를 다녀와서



SBS 사우회 '음악동호회'와 '요산요수회'는 합동으로 30여명의 회원들이 지난 5월 26일 대구 골목길 투어를 다녀왔다. 대글/박진삼 사우

구는 '덥고 따로국밥'처럼 맵고 짜운 도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국제보상운동을 일으킨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빼앗긴 땅에도 불이 오는가'를 쓴 저향시인 이상화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세대로부터 우리세대에 이어지는 가족 '동무생각(朋友)'의 아름한 사랑이 담긴 그 산실이 바로 대구이다. "봄의 교향곡"을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막으로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회갑을 넘기거나 칠순을 넘긴 대구지방의 여고 동창들이 모이면 으레 부르는 추억의 노래가 바로 이 '동무 생각'이다. 이 노래는 당시 마산여고 국어 교사였던 이은상 선생이 가사를 쓰고 계성학교 음악 선생이었던 박태준 선생이 1922년에 작곡한 것이다. 그리고 잊지 못할 또 한사람이 있다. 영원한 가족 김광석이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이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속엔 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다. 그는 1964년 1월 22일 대구시 대봉동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다섯 살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그게 인연이 돼 대구 중구청은 그의 고향이 방천시장에 '김광석 그리기 거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대중가요 가수 이름을 딴 거리로서는 대구의 이 거리가 최초다. 주말이면 김광석 거리엔 적게는 5천 여 명 많게는 만여 명이 이 거리를 헤엄친다. 이제 이 거리는 한국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우리가 청라언덕을 출발하여 '계산성당'을 향해 걸은 '3.1만세 운동길'은 역사적인 길이다. 특히 '계산성당'은 역사적인 길이다. 마치 시의 한 구절 같다. 나는 작년 이맘 때, 울란바타르 근교로 이 염소 고기를 먹으려 갈 기회가 있었으나 웬지 생소하게 느껴져 참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할미꽃은 염소로 만든 몽골 전통적인 고기 짜 '허르흐' 맛이 기가 막힌 줄 몰랐다. 할미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몽골, 시베리아 대륙에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 초본 식물이다. 4월에서 5월초에 나는 할미꽃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한다. 몽골 사람들은 매운 맛이 나는 이 꽃을 보드카 술에 담가 먹거나 달여서 먹는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할미꽃을 먹은 염소 고기를 먹는 것인데, 그 맛이 좋고 매운 맛이 난다고 한다. 몽골 3대 보양식 하나인 이 허르흐를 먹을 기회를 놓친 것을 두고 두고 후회를 했다. 이즈음 피는 것

는 길이 카미노입니다. 40여일, 800Km를 걷는 순례길! 처음엔 왜 이 길에 서서 고생하나 싶고, 뭘 얻어갈까, 뭐가 바뀔까에 집중하며 훈란스러웠는데 지난고 나니 힘들 때면 그곳에서 만난 분들의 좋은 말씀들, 그저 순간에 집중하며 행복했던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리워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 인생 후반기에 한줄기 빛과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스페인!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시간이 허락한다면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여행입니다. 객기에서 시작한 800Km 카미노를 걸으며, 성급한 저의 성격을 잘 다듬겨주고 동반 완주해준 친구 김동성 군과 장기간의 순례길 걷기에 격려를 해주신 사우회장님 그리고 사우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6. 06. 01. 카미노를 마치고 차성모

## 멀고도 험한 길 그러나 걷고 싶은 길



마음먹고 걷기를 통해 얻게 되는 내면의 변화. 시간의 여유로움 속에서 얻는 느긋함. 같이 길을 걷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밤의 소중함은 쉽지 않은 도전을 시작하는 나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카미노를 걷는 87세의 이탈리아 할아버지, 두 번째 온 72세의 재미교포, 퇴직하고 또는 휴학하고 카미노를 걷는 수많은 젊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주부들을 보면 무엇이 이들을 이 길로 이끌었는지 궁금증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할아버지 는 서두르는 저에게 쉬어 가라고 하면서 "천천히 가면 길이 다가오고, 서두르면 길이 멀어 진다" 말로 천천히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가라는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평범하지만 철학이 있는 말인 것

같아 외국 할아버지의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내 어느 종편의 토크쇼에서 유명 소설가는 여행에 대해 얘기하던 중 "여행은 다리가 멀릴 때가 아닌 가슴이 멀릴 때 해야 한다"라고 해서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있고 시간도 여유로우면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회원 중 가슴이 멀리고 의지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도전에는 인내와 체력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스탠트시술의 3중고에도 불구하고 완주의 목표를 세워 놓고 무모하게 객기를 부린 저에게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카미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저렴한 순례길입니다. 치밀한 사전 검증도 필요하지만 조금은 무모한 도전도 받아들여 주



Buen Camino!